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텅 빈 충만을 향하여

승려는 청빈을 기본으로 검소한 생활을 즐겨야한다. 비구(比丘)란 걸사(乞士)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우고 버리며 나눔의 생활 습관이 수행자로서 더욱 개운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모으고 쌓으며 챙기는 모습은 집착의 병을 앓는 수행자의 삶은 아닌 것이다.

출가(出家)와 수행(修行)은 결코 둘이 될 수없는 하나이다. 출가는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세속의 애착을 버리고 오욕락과 명예도 버리고 출발한다. 하여, 출가는 새로운 출발이자 비우고 버리는 텅 빈 충만을 향한 여행이다.

수행은 다짐과 결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추슬러 가혹할 만큼 자신을 향한 채찍질의 간절심이 이어져가야 수행인 것이다.

수행은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피눈물 나는 뼈를 깍는 고통을 이겨내며 참으로 비우고 버리는 간절심이 수행의 완성을 돕는 것이다. 경전을 통째로 달달 외우고 설법의 표현력이 대중을 사로잡아도 수행의 완성인 깨달음을 이룬 것은 아닌 것이다.

깨달음이란 집착과 의혹됨을 벗어버린 참사람을 의미한다. 꾸밈과 드러냄 없이 낮과 밤이 한결같은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 참사람인 것이다.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며 머묾 없는 머묾으로 진리와 한 몸을 이루어 감춤과 드러냄 없는 것이 참사람인 것이다.

하여, 참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로운 것이다. 쫀쫀하고 허잡스럽게 헐떡이거나 흔들리며 방황하지 않는다. 모으고 챙기며 쌓아두려는 속물근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명예 주변에 얼씬거리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윤회를 거듭할 리 없는 것이다. 돈 욕심과 명예 욕심에 젖어 있다면 그는 수행자는커녕 업덩이 중생일 따름이다. 출가 당시의 마음을 다지며 결의를 굳힌 처음처럼의 모습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속의 애착을 저버리며 살일이다.

수행자의 삶은 여러가지의 의미에서 비어 있어야 행복과 자유가 충만해지는 법이다.

비우고 버리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면 수행자는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며 뿔 달린 짐승처럼 변화해 갈 터이다.

비우고 버리면 개운하다. 편안하다.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바른길이 아니면 멈춤이 수행이다. 흔들리고 헐떡일 때 멈춤의 마음 챙김이 수행이다. 잠시의 기쁨이 오랜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알아차려 멈춤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드는 법이다.

수행자는 항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으로 멈춤을 생활화해야 한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한 것이다. 적은 것으로 만족을 삼아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이 수행자의 생활이 되어야한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구원을 약속해주는 메시아(Messiah) 따위는 키우지 않는다. 마음 열어 진리와 한 몸을 이루면 내가 부처님이요 참사람이요 오늘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다. 본래 동, 서, 남, 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이다. 변두리와 모서리도 생각만 바꾸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임제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처럼 이르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이며 누구나 아웃사이더가 아닌 '인사이더'의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소위, 출가 수행자인 스님들이 쫀쫀하게, 속물스럽게 해마다 신도들로부터 생일상을 받는다던지 세속인도 건너뛰는 환갑잔치에 칠순 잔치를 벌인다면 이 어찌 수행자의 모습일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승려가 죽은 후 접수대를 만들어 조의금을 받는다던지 꽃상여, 만장행렬을 준비하는 것이 이 어찌 수행자의 가는 모습이라 하겠는가.

살아서 분주한 몸짓을 털어내지 못했다면 죽어서라도 가뿐하게 개운하게 긴 그림자를 남기지 말 일이다. 승려의 49재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출가할 당시의 처음처럼 텅 빈 충만을 향하여 게으름 없이 정진하며 개운하게 살 일이다.

출가, '텅 빈 충만'을 향하는 여정
돈·명예 욕심 있다면 업덩이 불과

본분사(本分事)로 가르친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선수행(禪修行)에 있어서 곧잘 즐겨 쓰는 말 가운데 본분사(本分事)라는 말이 있다. 본분(本分)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본분이란 어떤 분별과 수단도 허용하지 않는 종사의 법도(法度)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선종의 종지를 완전히 터득한 이상적인 경지로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초탈된 자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실체가 없음에도 자유자재한 무어라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인 경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출가자가 해야 할 일을 두고도 본분사(本分事)라 하였다. 다시 말해 오로지 깨달음을 위해 전심전력 하는 것을 본분사를 위하는 것이라 하였다.

향엄지한(香嚴智閑:?~898)은 위산영우(潙山靈祐)의 법을 이은 제자이다. 그가 깨달음의 계기를 얻었던 것을 두고 향엄격죽(香嚴擊竹)이라는 말이 생겼다. 〈경덕전등록〉 11권 〈향엄지한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위산이 어느 날 향엄에게 말했다. "그대가 평생 공부해서 이해한 것이나 경전과 책자를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묻지 않겠다. 그대가 태어나기 이전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의 본분사(本分事)를 한 마디 말해 보라." 향엄이 영우에게 나아가 여러 가지로 자신이 이해한 바를 진술했지만 영우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향엄이 말했다. "청컨대 화상께서 저를 위해 설해 주십시오."

위산이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견해일 뿐이니 그대의 안목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 후 향엄은 공부가 잘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였다. 울고 싶은 심정이 되어 어느 날 영우 회상을 떠나 행각(行脚)을 나갔다. 남양(南陽)의 무당산(武當山)에 있는 혜충(慧忠) 국사(國師)의 처소에 가 며칠을 지내게 되었다. 하루는 도량을 청소하다가 자갈을 하나 주워 마당 멀리 던졌다. 이 돌이 대밭으로 날아가 대와 부딪치며 '딱!' 하는 소리를 내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홀연히 깨달음을 얻었다. 환희심이 넘친 그는 목욕을 한 뒤 향을 피우고 위산이 있는 쪽을 향하여 예배를 올리면서 속으로 말했다.

"화상의 큰 자비를 입은 은혜는 부모를 넘어서니, 그때 만약 저를 위해 말로 설명해 주셨더라면 어찌 오늘의 깨침이 있었겠습니까?"하고 찬탄을 하였다.

그리고 게송을 지어 읊었다.

"부딪치는 한 소리에 알음알이 잊고, 더 이상 수행의 힘 빌리지 않는다. 움직이는 가운데 옛 진리 드날리며, 고지식한 기틀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디에도 종적이 없고 소리와 빛깔을 벗어난 위의라, 제방에서 도를 통달한 이들이 모두 그를 최상의 기틀이라 하네."

(一擊忘所知 更不假修治 動容揚古路 不墮悄然機 處處無蹤跡 聲色外威儀 諸方達道者 咸言上上機)

그 후 그는 향엄산에 머물면서 위산의 종풍을 널리 선양하였다. 향엄은 원래 박학다식하고 언변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불입문자(不立文字)를 표방하는 선의 세계에서 말하는 본분사에 있어서는 그의 학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학문은 날로 더해가는 것이지만 도(道)는 날로 덜어내는 것이다(爲學日益 爲道日損)' 라는 말이 있다. 학문의 영역과 도의 영역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다. '대(竹)에 돌이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모든 알음알이가 날아갔다' 는 말이 묘한 뉘앙스를 남긴다.

향엄은 후에 또 다른 시를 남긴다. 가난타령을 한 시이다.

"작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네. 금년의 가난이 진짜 가난일세.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이 없더니 금년에는 송곳마저 없어졌다네."(去年貧未是貧 今年貧始是貧 去年無卓錐之地 今年錐也無)

〈전등록〉에 수록되어 있는 이 시는 깨달음의 경지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혹은 공의 상태로 표현한 지극한 말이다. 굳이 사족을 달자면 작년에 깨닫고 비로소 주객이 모두 없어진 경지를 체험했다.

다시 말해 무(無)를 체험하고 공(空)을 체험했다. 그러나 마음속에 깨달았다는 희열감 내지 충만감이 꽉 차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마저 사라져버리더라는 말이다. 그야말로 무소득(無所得)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보리의 열매는 자비심에 있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⑬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眾生常爲苦苦所苦。行苦所苦。壞苦所苦。若見一苦足生悲因。況復具足三苦。愚癡眾生常爲百千諸苦所苦。若見一苦應生悲心。況復百千諸苦。應當了知。世間諸苦於一一苦中未生悲心者應當生悲。已生悲心應當增長。況復無量。若聞世間種種無量諸苦。石 應軟。況有心者而不生悲。若聞世間悲呼之聲。枯樹猶應生華。況有心者而不生悲。世間苦一味心柮軟者易生悲心。有悲心者菩提之果便在掌中。

번역 | 중생이 늘 괴로운 것은 괴로운 데서 괴롭고, 괴로운 행으로 괴로운 바며, 괴로움에 무너져서 괴롭나니, 만약 하나의 괴로움을 보고도 자비의 인연을 내기에 족하거늘, 하물며 세 가지 고통에 자비를 족히 갖추는 것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중생은 늘 백천 가지 고통에 괴로운 바, 만약 하나의 고통에 자비심을 낼 수 있다면, 하물며 백천 가지 고통이겠는지요.

응당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낱낱의 고통에 자비심을 내지는 못하지만 응당 자비심을 내어야 하며 이미 자비심을 내었다면 응당 증장시켜야 하거늘, 하물며 한량없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세상의 가지가지 무량한 고통을 들으면 돌멩이도 물러지겠거늘, 하물며 마음에 자비심을 내지 않겠는지요. 만약 세상이 자비로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면 마른 나무도 오히려 꽃 피우는데, 하물며 마음에 자비심이 생기지 않겠는지요.

세상의 고통은 한 맛이요, 마음에 부드러운 이는 바꾸어 자비를 낳나니 자비심 있다는 것은 보리(菩提)의 열매가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설 | 진흙소가 되어 한시도 쉴 수 없는 세계에 던져진 중생은 삼고(三苦)에 시달린다.

바로, 괴로운 데서 괴롭고, 괴로운 행으로 괴로운 바이며, 괴로움에 무너져서 괴로운 세상이다.

그러나 희망의 빛줄기는 두껍고도 캄캄하게 드리운 구름을 뚫고 고해(苦海)의 바다를 비추기 시작한다. 폭풍우 치던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지는 것이다. 표류하며 한없이 두렵고 목마르던 존재가 딛고 일어설 땅과 그 땅의 풍성한 과일을 발견한다.

이것은 고제(苦諦)가 주는 한 줄기 빛이다. '세상은 괴로움' 이라는 명제는 '세상은 괴로움을 벗어날 희망을 지녔다' 는 메시지의 전조다. 바다에 표류하던 이가 갈매기를 발견한 뒤 섬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듯이, 고(苦)의 실체를 안다는 건 열반의 섬이 가까웠다는 반증이 된다.

우리들은 그 편히 쉴 수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매 쯤 있었는지 몰랐을 뿐이지 눈앞에 보이면 곧 안도의 숨을 쉬게 된다.

전혀 깨질 것 같지 않던 차돌맹이 같던 번뇌와 괴로움이 물러지는 시간이다. 바싹 말랐던 나무에 꽃이 필 시간이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을 시간이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벙어리가 노래를 부르는 때다.

과거심불가득(過去心不可得). 미래심불가득(未來心不可得), 현재심불가득(現在心不可得)이었던 그 실체에 들어가 괴로움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들여다보자.

내가 살기 위해 죽였던 것들,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끌어 모았던 재물, 세상에서 내 아픔이 제일 중요했던 순간들을 돌아보자.

그런 것들이 바다가 되고 폭풍과 파랑의 업이 되어 나를 덮치지 않았던가? 나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의 허망함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지 않았던가?

중생을 향한 자비심은 어쩌면 관념적인 말이다. 그 스스로 만든 세계에서 표류하는 인간상(人間相)을 자각하면 이제 말하지 않아도 가엾다. 못내 가여워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게 자비(慈悲)였다.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